

‘12·3 내란 동조 의혹’ 두고 도지사 후보 간 공방전

金 “책임져라” vs 李 “책임 회피 말라”

〈김관영〉

〈이원택〉

김관영 후보, 불기소 결정서 공개… “사실 아냐”

이원택 후보 향해 “자신이 말한 정치적 책임져야”

‘전북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내란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자신이 말한 정치적 책임을 지어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관영 후보는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내란 거짓 선동”의 완전한 종언을 고하는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받았으며 “이원택 후보가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공식 문서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전북도청 청사 폐쇄 의혹, 35사단과의 협조 체계 유지 의혹, 준예산 편성 지시 의혹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무혐의 판단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먼저 청사 폐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청사 보안 조치가 이뤄졌을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35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유관기관 담당자 간 상황 공유 차원의 연락은 있었지만, 35사단 내 지역계엄시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12·3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7일 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원택 후보는 불기소 사유서를 보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으며 “이제 특검의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가 공개된 만큼 이는 변명하거나 물타기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 측이 공개한 특검의

결정서에는 “경제부지사가 지방의회 활동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국장 회의에서 준예산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관영 후보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실제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종합 판단에서 “회의자가 내란 부화수행 등의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

‘동명이인’ 정치 9단이 떴다

민주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후보 ‘5선 중진’ 박지원 의원 후원회장으로 영입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가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려 45년 나이 차이의 동명이인 정치인이 손을 맞잡으면서, 민주당 내 최고 경륜과 젊은 정치 신인의 패기가 결합한 상징적 만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원회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 정치인이다. 그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후보의 요청을 받고 후원회장을 흔쾌히 승낙했다”며 “반드시 당선돼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개혁국회 완성에 함께하길 바란다”

고 힘을 실었다. 이에 박지원 후보도 “정치 9단의 경륜과 정치력을 가까이에서 배우게 돼 큰 영광”이라며 “별소 존경해 온 박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고 화답했다. 실제 두 사람은 당 행사 등에서 자주 만나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름 덕분에 정치권 인파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명이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원택 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서 치러진다. 박지원 후보는 정치 대선배인 박지원 의원의 지원 속에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만호 기자

이원택 후보 “무혐의 받았다고 책임까지 면제 안돼”

김 후보 향해 “부끄러운 변명 멈추고 궤변정치 멈춰라”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측이 지난 15일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 전북도지사에게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거짓 내란 선동’ 주장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며 “전북도민이 부여한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관영 후보가 헌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판단과 대응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문서와 국회 제출 자료, 당시 브리핑 영상과 보도 내용, 관계자 증언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당시 도지사의 판단과 행동을 검증하는 것은 도민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한 책임”이라며 “이를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김관영 후보와 관련한 2차 특검의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결정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전북도청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하고 출입 제한·통제 지시를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를 발송한 사실 등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도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시를 즉각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와 시청사를 개방해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현장질서 수호 대책 회의를 개최했던 광주광역시청의 대응과 비교하면 김관영 후보의 대응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원택 후보는 “사법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유권자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과 도민에 대한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후보는 정치적 책임 문제를 사법적 책임 논란으로 둔갑시키며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황당하고 부끄러운 변명을 중단하고 궤변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 권당 113명 “정청래 사당화 저지”

“특정 후보 비호 멈춰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정청래 사당화 저지 113인 배심원단이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당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독선적 사당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리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정청래 사당화 저지 113인 배심원단이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독선적 사당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를 알살하는 정청래의 독선 정치와 특정 후보 비호를 중단하라”며 “전북도민과 권리당원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원택 후보와 관련된 식사비 대납 의혹 및 공직선거법 논란 등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비호가 당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각종 공직선거법 의혹에 휩싸인 이원택 후보를 향한 맹목적 끌어안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배심원단은 성명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됐고 현재 전북경찰청 내부재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사건으로 김습지 도의원은 후보 자격이 박탈됐는데 이원택 후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꼬리

를 자르고 몸통은 보호하는 식의 감찰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김관영 후보를 둘러싼 ‘내란 부화수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윤리 감찰은 멈춰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의 극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전북 권리당원은 더 이상 중앙당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중앙당 권력을 앞세워 전북 당원을 감박하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정청래 대표의 행태를 당원에 의한 심판으로 단죄할 것”이라며 “불공정의 상징이 된 특정 후보 비호를 중단하고 전북도민과 당원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지선 광장 시민후보 인증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국민권선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가 주관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장 시민후보로 추천·인증했다. 전국 시국회의는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전국 광장 시민후보 출정식’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추천하고 시국회의가 검증한 전국 34명의 후보를 발표했고, 조 후보는 전북의 민주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시민후보로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

민주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발목 잡기식 네거티브 멈춰라”

오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인 양충모 후보는 상대 후보인 강동원 후보 측이 제기하는 ‘대통령 비서실 경력’ 관련 공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하며, 과거의 단어 하나에 집착하는 소모적 논쟁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에서 경제분야의 실무에 참여했던 사실은 변함없는 본질’이며, 선거공보물이나 명함에도 분명하게 표기돼 있다”며, “과거 모 지역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기사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하며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발목 잡기식 네거티브”라고 지적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14일 전북지역 마을교육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체계, 학교 밖까지’

천호성 교육감 후보, 마을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

전북지역 마을교육전문가들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감 후보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14일 전북지역 마을교육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마을교육 활성화 및 지역 기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지역 교육 철학이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 환경·생태교육, 통합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마을강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육활

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마을교육이 개별 활동자들의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청소년 기관, 지역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력기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전북교육자치 협력기구(가칭) 상설화 △지역 연계 교육과정 의무화 △방과후 및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형 글로벌 교육 확대 △고교 졸업 예정자 대상 금융교육 강화 △환경교육 전달 조직 신설 및 교직원 의무 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형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과 교육자치 강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군산 경제의 판 바꾸고 통합 정치로”

민주 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본격 본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지난 14일 군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본 후보 등록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장 수령과 지역위원장 임명에 이어 선거전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앞으로 현대차그룹 9조 원 새만금 투자 완성으로 군산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라며 “군산시민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골목 어디서든 따뜻하게 손잡아 달라”며

시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 밀착형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군산시민 여러분의 삶에 활짝 핀 봄날을 약속하며 결과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밝히며 지지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향산 △현대차그룹 9조 원 새만금 투자 완수 △군산 AI·로봇 산업 메카 조성 △창년 일자리 창출 등을 군산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릴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후보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시 월영로 192(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군산시민 만남의 날’을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만호기자